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ri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형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2호 현대불교 2007년 1월 24일(음력 12월 6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이 창살없는 인간 게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 몸 속에 지금 미생물이, '예전에 나는 이렇게 됐다.' 하기 이전에 '지수화룡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있구나!' 이거죠. 미생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태초예요. 자기 생의 태초. 자기 오장육부를, 이 세포를 전부, 살이든지 뼈든지 세포든지, 그 모두가 걸림이 돼 있으면서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들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그렇게 살면서 물러가 타락시키고 지혜가 나온 것이 바로 자꾸자꾸 형성을 시켜가는 겁니다. 요만한 벌레 하나가 날아다니는 벌레가 되지 않나, 요만한 벌레가 매미가 되질 않나. 이렇게 진화된 것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잘 아시고 계십니까? 죽는 것이 아니

에 지장이 있을까봐 일부러 아주 험악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어요, 각오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사회나 국가적으로 참 이득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춘보 선사라고 계셨는데 그 춘보 선사는 원호 대사처럼 만날 남한테, 뭘이냐? 파계종이라고 만날 돌림을 받았어. 그런데 이 스님은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여기 가도 "아이구", 저기 가도 "아이구" (고개를 숙여 보이시면서)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사람 같지도 않지. 그랬지만 그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원호 대사보다도 더 노력을 참 많이 발휘했다고 봐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때에 참, 국난에 빠져서 어려웠을 때 조선에 이익을 주었다는 얘깁니다. 나라가 국난에 빠지니까 스스로 일을 벌인 겁니다. 어떻

고만 있었지, 뭐 불려다가 어떻게 한 건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행을 그렇게 잘하셨으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처지라. 그 친구를 쳐다만 보고 있다가 밤을 새우고 이튿날 아침에 "여보게, 자네가 잘고 앉았던 거 나 좀 주게."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 "새까맣고 때가 묻은 것을 갖다 바깥에 나가서 털어다가 날 좀 주게, 내가 정승한테 가서 팔아다 줘세." 그러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놀라지 말고 내 뜻을 잘 생각을 해보게. 부처님 법이란 이렇게 좋은 걸세." 하고선 그럴 써서 달라라고 그랬습니다.

싸서 달래가지고 가서 정승,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정승이라고 합시다. 정승한테 가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앞으로 9년이 있으면 청국에서 이 나라 보물을 청해 와, 그때 보물로 쓸 테니까 이것을 잘 싸되, 백지로 싸고 또 싸고 일곱 번을 싸고 여덟 번째 싸되 공단(貢緡)으로 싸라. 공단으로 싸고 난 다음에는 상자를 만들어 아주 튼튼히 삼겹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라." 지금으로 치면 도끼로 쳐도 영 쪼개지지도 않게 해서 잘 싸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승이 가만히 생각할 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백 냥을 받고, 그때 오백 냥이면 답구지이다 싫어야 돼요. 무거워서요. 그래서 답구지이다 싫어가 갖다 주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삼년 후에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깐 또 짐세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빚진 거 다 갚고 그러니까 물 퍼붓기죠. 뭘 빠진 독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한 바퀴 휘 도니까, 글썽 찌그러진 필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발동구에 오줌이 담겨 있는 누렇게 된 필요강이 하나 있던 말입니다. 그것을 좀 북북 뒤어서 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건 뭘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내가 팔아다 줄 테니까 그런 줄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물우물 썼습니다.

싸가지고서는 가서 또 그 정승한테 그랬습니다. "육년만 있으면 이것이 큰 보물로 다 쓰일 테니까 오백 냥만 내게.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지금으로 치면 일곱 배도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해요. 그게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이겠지만은 그래서 그 정승은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그것을 또 그렇게 싸고 싸서 상자에다 넣어서 지금으로 치면 그냥 튼튼하게 그렇게 넣어놔요. 또 이제 싫어다 주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죠. 싫어다주곤 또 올라갔다 삼년 만에 내려오니까 또 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로다가 보태주는 것은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대 내려오니까 또 그 지경을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안팎을 다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낫갓 쓰던 거요, 그분이 정승으로 계시 때에 낫 시일을 하느라고 갓갓을 썼었는데 주머니 밑에다가 걸어놓은 것이 아주 사그라져서요. 새똥 똥 똥 하고 그냥 사그라져서 바슬바슬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물 좀 뿌려주세요. 물 좀 뿌려서 누굴누굴하게 해서 이것 좀 싸주세요." 그러니까 "여보게, 그건 내다버리거나 아궁이에다 넣어도 시원찮은데 그럴 거 가지고 가면 뭘 하나?" "글썽 걱정 말고, 우리나라를 구하는 일도 되네. 이것이 지혜일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가져가서, 삼정승한테 얘기를 하고 삼년만 있으면 그렇게 보배로 쓰일 것이니 돈 오백 냥만 더 내라고 그러가지곤... 하하.

지금 아마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니까? 만약에 이걸 해드리지 못한다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그거 싸놓았던 거를 해드린다.' 하면서 여기 사신과 거기 사신과 모든 의식을 다 갖추어서 춘보 선사가 앞장을 서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춘보 선사는 아주 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데 정승들은 그냥 밥을 못 먹고 헛바닥이 쪼개지고요, 밥을 넣으면 그냥 모래알 같은 거라요. 글썽 찌그러진 거, 정승이 쓰던 그 낫갓 그럴 거 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조선의 보물이 됩니까, 글썽? 그러니까 뭐 입도 쓰고 죽을 맛이죠. 저 춘보 선사는 앞장을 서서, 내일 죽더라도 먹을 건 먹고 돌아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죽으면 사는 길이 있다가요. 그래도 못 알아들거든요, 유교로만 나가서.

그래서 감을 건너서 청국에서 마중을 나와서 그

얼마나 역력하고 에누리가 없는지 철두철명한 게 이 부처님 법이예요

라, 때가 되면 웃을 벗는 겁니다. 웃을 벗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더 차원을 높여서 자기 몸을 형성시키면서 다리가 짧으면 길게 만들고 길면 짧게 만들고 아주 자유자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부처님 법이죠. 얼마나 무변한 법을 여러분이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법신(法身)이고 화신(化身)이고 보신(報身)이고 부처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즉 말하자면 부처를 써서 배겨속에 넣거나 어디 붙이거나 하는 이런 미신 짓들을 한다면 죽어서도 그 차원이니 어떡하죠? 요다음에 태어나서 그 차원끼리 또 만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다른 게 나올 게 없거든. 지금 세상을 살펴보세요. 백봉 거사 말했듯이 까리까리를 모이지 않았나? 사람도 까리까리 모이고, 물건도 까리까리 모이고 또 물건을 갖다 쏟아놓으면 골라요, 까리까리. 골라서 놔요. 얼마나 역력하고 에누리가 없는지 철두철명한 게 이 부처님 법이예요.

게 벌인 건가? 청국으로 하여금, 무슨 일로 이쪽으로 청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나 하면은, 잠착하시라고 머리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 정승을 자넨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옛날에 양반은 나가서 막일을 못했습니다. 어느날 춘보 선사가 그 집엔 들렀더니 사랑방에 앉아서 글씨 짓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피를 깔고 앉아서 발을 치고서, 그렇게 당당하던 그 정승이 하루 아침에 정승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삼림은 가난하고, 마음은 깨끗하고, 돌림성은 하나도 없고, 지혜라는 게 있어야 돌림성이 있지. 그래서 종들은 다 나가고 그러니까 호피를 깔고 앉아서 짓세기를 끄는데, 호피가 때가 꼬질꼬질하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때 춘보 선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춘보 선사라는 분이 나라에까지도 알려져 있는 분이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랬으니까 어디 고을 하면 벌써 파악하지 않습니까? 고을 고을에 다니면서 원호 대사처럼 많이 구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인정을

누워 있는 부처님 앉아 있는 부처님 서 있는 부처님이 다 당신이시군요

"삼백 냥... 오백 냥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욕 많이 할 겁니다. 하아튼 어떻게 되었든지, 그래서 오백 냥을 또 갖다 주고 있는데, 삼년 뒤에 청국에서 사신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조선의 보물을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보물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보물을 안 가져온다면 여기 조선에 어떠한 벌을 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나라도 살기가 어려웠던 때인데도, 그렇게 또 당하니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째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하니까 참 살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때 서춘보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일곱 이 머리를 싸고 그냥 걱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선의 보물이, 청국에 들어갈 보물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되고 춘보 선사가 갖다 준 그것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춘보 선사를 찾느라고 은통 산을, 사람을 풀어서 해봤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춘보 선사는 벌써 그것을 알고 하산하셨습니다. 내려와서 "나를 그래서..." 변변히 알려서도 묻는 겁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그러해서 이렇게 스님 생각이 나서 찾았노라고 해요. "지금 밥을 못 먹고 싸매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

냥 짝 둘러쳤거든요. 그러니까 춘보 선사가 하는 소리가,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보물은 어디에도 없는 보물이니 밤새도록 잘 지켜라." "누구 하나 손대지 못하게 지켜라." 거기서 나온 군졸들, 여기서 나간 군졸들이 그냥 짝 둘러서서 화롯불을 놓고 그냥 지킨 거예요. 아주 걸림이 선 거예요. 그렇게 위엄 있게 해가지곤 딱 - 당도했어.

청국 천자가 턱 나오는데, 당장 그렇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보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단번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풀니까?" "깊이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부처님의 그 뜻을 찬양하면서 조선국의 그 고마움을 음미하면서 삼일을 기도하고 난 뒤에 이거를 풀어야 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글썽 얼마나 존경을 주었습니까? 삼일 동안.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전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천자가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기에 그런가?" 했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없는 걸 가져와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삼일 있다가 모두 위에 앉았고 밑으로 죽었고 그

22면으로 계속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소연구원: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경허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 (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급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월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관절통,오십견,견비통,팔저림,목디스크,요실금,코골이,무호흡증,수족냉증,위장병,비만,불면증,당뇨,고혈압,갑상선,우울증,초조불안,두통,안짱다리,생리불순,생리통,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전수련법, 임,독맥스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시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불교의식범음수련생
범패모집

수림사에서 불교 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창,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화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5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강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